

English Worship Service		
[Westminster Hall, 11:15 am]		[Pastor: Daniel J. Kim]
Prelude	Pianist	
* Call to Worship	Pastor	
Praise & Worship	Praise Team	
* Apostles' Creed	Congregation	
* Doxology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Aesoon Jang (Kwonsa)	
Offering	Congregation	
* Offering Hymn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Pastor	
Welcome/Fellowship	Congregation	
Scriptural Reading	Revelation 3:14-22	Pastor
Anthem	Jerusalem Choir	
Sermon	"Open Hearted Faith"	
* Hymn	218	Congregation
* Benediction	Pastor	
* Lord's Prayer Song	Congregation	
(* Please stand)		

“Open Hearted Faith”

Laodicea, perhaps the wealthiest city in Asia Minor, was renowned for 3 things: banking establishment (reputed for its treasury of gold), textile industry (reputed for its glossy black wool), and medical school (reputed for its special eye ointment). The city prided itself on self-sufficiency and resourcefulness. Once destroyed by earthquake in AD 60, the citizens rebuilt the city without any Roman assistance. A major weakness, however, was its lack of water supply. So they had to rely on an aqueduct system to draw hot mineral water and icy cold water from nearby cities. The church of Laodicea seems to have taken on similar characteristics of the city. The church had such great wealth and status that she had become so spiritually complacent that she had practically shut the door on the face of the Lord. Therefore, the Lord had only words of rebuke for this church. "I know your deeds that you are neither cold nor hot. I wish you were either one or the other. So because you are lukewarm--neither hot nor cold, I am about to spit you out of my mouth" (Rev.3:15-16). The church had so compromised her faith to a degree that her faith had become stagnant, like lukewarm water. "You say, 'I am rich; I have acquired wealth and do not need a thing.' But you do not realize that you are wretched, pitiful, poor, blind, and naked" (v.17). The church was materially wealthy, but was spiritually bankrupt. The church was highly educated, but was spiritually blind. The church was clothed with sophisticated culture, but was religiously superficial. To this church, the Lord exhorts: "I counsel you to buy from me gold refined in the fire so you can become rich; and white clothes to wear, so you can cover your shameful nakedness; and salve to put on your eyes, so you can see" (v.18). To this very church which was in danger of being "spit out" by the Lord, the Lord offers one of the most wonderful promises recorded in the Scripture. "Here I am! I stand at the door and knock. If anyone hears my voice and opens the door, I will come in and eat with him, and he with me" (v.20). What stands between the church and the Lord is the heart's door. The door implies freedom of will. The Lord does not force himself in. He stands outside, patiently waiting. He continually knocks the door, calling the church to open her heart fully to Him. If she would respond to Him in obedience, the Lord promises an intimate fellowship with Him: "I will come in and eat with him" (v.20b). He also promises a privileged honor in Him: "I will let you sit with me on my throne" (v.21).

- Announcements**
- We warmly welcome all newcomers to our worship service.
 - We invite you to join us for fellowship at Room 104 after the service.
 - If you have any special prayer requests, please submit them in the prayer box located at the rear, so that we may pray for you.
 - Sunday Study Groups are as follows:
 - 10:00 am (Room 104) - Leadership and Intercession (led by Pastor Daniel)
 - 12:00 pm (Room 104) - Children’s Sunday School Class (led by Cing and Shin Hye)
 - 1:00 pm (Room 604) - Youth Bible Study (led by Pastor David John and Sally Khokhar)
 - 1:00 pm (Room 104) - “Christian Doctrine” Study (led by Jimmy Eppley)
 - 1:00 pm (2nd floor) - “Romans” Bible Study (led by Vung Zam Cing)
 - 1:00 pm (9th floor) - Mongolian Bible Study (led by Amaraa and Dashka))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영어통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교회학교 예배 및 부서안내

부 서		예배 및 분반공부시간		장 소	부 서		예배 및 분반공부시간		장 소
영아부(0세-24개월)	1부	오전 9시		영아부 403호	사 랑 부		오전 10시30분		102 호
유아부(25개월-5세)	2부	오전 11시20분		유아부 706호	소 망 부		오전 10시		603 호
유치부(6세-7세)	3부	오후 2시		유치부 702호	예바다부	예 배	오전 11시20분		603 호
유 년 부		오전 9시		701 호		성경공부	오후 2시-3시		603 호
초 등 부		오전 9시		601 호	장 년 부		오전 10시		본 당
유초등부 연합 2부예배		오전 11시20분		701 호	장 년 부(오후반)		오후 3시30분		702 호
꿈나무영여성풍스쿨		오후 4시		701 호	소요리문답부		오전 10시20분		903 호
어린이 찬양예배(주일)		오후 5시			신앙강좌부		오후 12시40분		601 호
어린이 수요일예배		오후 7시		603 호	새가족부	원입반	오전 10시20분		602 호
중 등 부		오전 9시		501 호		전입반	오후 12시40분		
고 등 부		오전 9시		101 호	세례교육부	1부	오전 10시20분		607 호
청년 1부		오후 1시30분		101 호		2부	오후 12시40분		
청년 2부		오후 1시30분		101 호	직분자양성부		오후 12시40분		606 호
디아스포라부		오후 1시		901 호	새가족환영부		오후 12시40분		802 호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황 광 유문건 박영준 조원영 서준권 교육상담목사 양세라 전도사(전도담당) 배경애 교육목사 임규현 천재종 심진희 협동목사 김철홍 원종현 김다니엘	
전도사(교육담당) 구본태 장재원 정대는 이진광 고수는 , Vung Zam Cing, David John Khokhar 선 교 사 강아곰·주하나, 권요셉·조예스터, 김모세·이하나, 김원호(동아시아),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재정, 바켓잔, 박병연(카자흐스탄) 스프로토바로이, 조남해, (방글라데시), 이재율·박병진(캄보디아), 전호진(미얀마), 조범연·김희정, 우상식·김정욱(인도), 정상진·홍성민(팔라우),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손신 알·민메라(체코),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김인사·현해옥(아르헨티나), 홍남가·김민규(우크라이나), 허창범·현 미순(일본), 김평강·최사라(동남아시아), 김낙형·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터키노동자), 탕, 썬, 코, 카, 마이, 랑, 사무알, 레이, 난, 썬, 썬다, 사우, 키움, 랑, 흐라, 라베, 벤, 바에, 마웅, 차, 짜우, 마카엘(미얀마) 필리몬, 프로산도, 수레시, 수바쓰, 이경명, 알로토, 비시누보도, 보디소프, 린토, 수란존(방글라데시), 김 태식, 윤왕모, 노신애, 이금순, 김명일, 김덕수(군선교)		



**대한예수교
장 로 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종 윤
Lee Jong-Yun, Ph. D., D.D., D. D.

담임목사
Senior Pastor

박 노 철
Park, No Cheol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스데반의 설교 ② : 신앙인의 복”
("The Sermon of Stephen ② : The Blessings of Christian “)

■ 행 7:9-19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 스데반의 설교를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스데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아브라함을 언급했었고, 오늘 본문을 통해 두 번째로 요셉을 언급합니다. 요셉이란 인물은 실로 흠을 잡을 곳이 없는 위대한 신앙인으로 유대백성들이 아브라함처럼 자랑스럽게 생각해오던 그들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 사람, 요셉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애굽에 팔아넘긴 자들이 바로 너희 조상을 아니였냐고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은 요셉의 인생 가운데 역사 하셨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은 요셉을 언급하면서 어떤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어했을까요?

1.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모든 환난에서 건져 내 주시는 하나님

요셉은 실로 그의 인생 가운데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역경을 다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모진 고난과 시련을 극복해 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 모든 고통의 과정 중에서 자기와 함께 해 주셨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받은 백성으로 살면서 누리는 최고의 축복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고 하는 임마누엘 축복일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겪는 그 고통들과 상처들, 다 이해할 수 없을지 몰라도 지금 당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더욱 아름다운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는 믿음이 우리로 안내하게 하고, 소망하게 하여, 결국 승리의 자리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2. 우리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꼭 맞는 은총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날도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요셉은 노예였고, 또한 옥살이를 오래했기 때문에 그의 가방 끈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섰을 때,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지혜의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라고 말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은혜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3.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 보디발과 그의 모든 집안은 복을 얻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요셉 때문에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이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자, 애굽 뿐만이 아니라, 천하 만민이 복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구원 받은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복을 누림으로, 그 어떤 역경과 시련을 견뎌낼 수 있는 믿음과 인내와 승리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지혜를 누리며 일시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복도 얻게 되었습니다. 한 결을 더 나아가서 그는 혼자만 그 복을 누리던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애굽, 그리고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과 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맺는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 누렸던 복, 즉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그 모진 고난을 이겨 낼 수 있었던 복, 은혜와 지혜를 주시는 복, 구원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던 복을 똑같이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것은 누리면서 오직 한 가지만 우리가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통로로 쓰임을 받고 있는 복은 어쩌면 우리가 거부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전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한 번 해 봅시다. 그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구원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바로 그 가족, 친구, 이웃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와 같은 귀한 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 박노철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sider	Prayer
I 오전 9시	황 광 목사	김영준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서명철 목사	이영기 장로
III 오후 2시	유문건 목사	서문석 장로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에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 91:1-2…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	…2(6)…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80(고후 4)…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1(1)…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	…31(46)…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고 전 9:16-23…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헌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634(70)…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	… 전도 자의 심정 …원종천 목사
(Heart for Evangelism)	
* 찬 송 Hymn	…502(259)…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 입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차주연	임아름	윤주일	가브리엘		임아름
II 부	할렐루야	고성진	김현정11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앤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류충기	김윤지	양경실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유태왕	최수황	박수강	특 별 찬 양			
영어예배	예루살렘	심상희		이승민1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아멘관현악단(대장: 김혜연 집사, 지휘: 임범창 집사)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수요 I 부	호 산 나	구민영	김현정15	홍혜란				
수요 II 부	시 은	최유현	김진형	박승기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인도, 설교: 박영준 목사
묵 도	다 함 께
성 시	시 62:7-8 인 도 자
찬 송	310(410) 다 함 께
기 도	백승갑 집사
성 경	골 1:24-29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설 교 자
특별찬양	아멘관현악단
* 찬 송	… 91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수 요 예 배	
I 부 오전 11시	인도, 설교: 조원영 목사
II 부 오후 7시	
기 도	I 부: 정미애 권사 II 부: 석춘희 권사
성 경	암 7:10-17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영적 전쟁” 설 교 자
새 벽 기도 회	
오전 5시30분 본당	피아니스트: 이경화 · 홍혜란김양언
설 교	박노철, 유문건 목사

금 요 기 도 회

금요기도회는 2015 사랑의 바자 관계로
모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성경 중심·교회 중심

교 회 소 식	
◆ 모 임	
1. 8교구 교구일꾼 모임 / 13일(주) 오후1시10분 9층(카페)	
2. 비보 전도회 직장인 월례회 / 13일(주) 오후1시20분 702호	
3. 아브라함 선교회 월례회 / 13일(주) 오후1시50분 903호	
4. 2015 사랑의 바자 회의 / 13일(주) 3부 예배 후 202호	
5. 한나 전도회 직장인 월례회 / 13일(주) 3부 예배 후 903호	
6. 마리아 전도회 직장인 월례회 / 13일(주) 3부 예배 후 801호	
7. 선교위원회 회의 / 13일(주) 오후3시30분	
8. 살롬 권사회 / 13일(주) 오후3시20분 502호	
9. 이마용봉사(송파구 노인복지관, 역삼동 지체장애인 센터)/ 15일(화) 오전9시30분 101호	
10. 제1권사회 직장부 야외예배 / 19일(토) 오전10시 서울숲(분당선 3번출구)	
11. 전 도 / 13일(주) 주일전도 : 전교인(1,2,3부 예배 후)	
주일은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날입니다. 나가실 때 각 층 로비에 비치된	
순례자와 전도지를 가지고 이웃 전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5일(화) 오전 10시 70인전도대대치삼성, 도곡역של, 롯데캐슬, 진달래, 대치 I -park, 삼성동힐스테이트, 개포주공)	
오전 10시 70인전도대 화요기도팀(609호)	
16일(수) 오전 10시 70인전도대 수요기도팀(609호), 문서전도팀(603호)	
오후 1시 70인전도대 특례생 학부모 기도팀(903호)	
오후 1시30분 70인전도대 수요노방팀, 루디아 전도회(607호)	
오후 8시 70인전도대 수요야간팀, 스데반회(한티공원)	
17일(목) 오전 10시 70인전도대(중점전도: 은마, 미도, 대치현대, 역삼라키, 국제, 개포주공(7단지))	
오전 10시 70인전도대 목요기도팀 603호(11시 202호)	
18일(금) 오후 2시30분 70인전도대	
19일(토) 오후 3시 70인전도대 토요노방팀, 바울 선교회(한티공원)	
◆ 알 림	
1. 새가족 등록 /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목사님과과의 대화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202호-칼빈홀)	
2. Baby-sitting 운영 / 수요예배와 주일오후 찬양예배에 참석하는 유아를 위해 403호에서 아기를 돌보고 있습니다.(베들레헴 홀)	
3. 영어동시통역 (통역: 김시라 권사) / 2부 예배 시 외국인을 위한 영어동시통역이 있습니다.	
동시통역이 필요하신 분은 현장에서 안내위원들에게 Earphone을 받아 사용하신 후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Simultaneous interpretation earphones are available to help your service, please ask an usher at the door to assist you』 (Interpreter : Sarah Kim)	
뒷면으로 계속➡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최춘자2	12교구	마가다락부	인내팀/강기현	이정민8	13-6	도르가	희락팀	김지훈11	5교구	사랑부	희락팀/이동귀
이낙심	14교구	마가다락부	인내팀	권지형	13-6	빌립	희락팀	현동협	10교구	사랑부	희락팀/이동귀
김귀남1	8-2	이삭	신용식	이길춘	5교구	예바다부	김나리	김홍미	교육2국	고등부	자비팀
김영준3	13-7	베드로	자비팀	김희정8	교육2국	청년2부	자비팀/배경애	이한가은	교육1국	초등부	본인
박재우3	5-9	빌립	이주희	Niken Koesoemo	7교구	영어예배부	본인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앞면에서 계속
4. 2015 사랑의 바자 / 9월17(목)-18일(금) 오전10시부터 오후7시까지 열립니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5. 2015년 사명자대회 VIP작성 / 작성 후 접수함에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6.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병무, 교육,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310호) ※ 전화 예약 010-5779-1329
7. 의료 상담 / 정현구(치과) 주일 오전 10시30분 - 오전11시까지
1층 서적부에서 의료 상담 및 진료를 합니다. ※ 전화 예약 010-2902-5922

🌳 뉘우침	
뉘우침이 필요치 않을 만큼 완전무결한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받기도 하고 베풀기도 한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용서를 빌 줄 모르고 목을 곧게 하는 자는 독사의 자식이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인간은 자신의 과오를 뉘우칠 뿐 아니라 새 출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주님을 세 번씩 부인했던 베드로는 크게 뉘우친 후 통회의 눈물을 쏟고 주님께 돌아와 대 사도가 되었다. 그러나 배신자 가롯 유다는 사람 앞에 후회는 했으나 하나님께 회개치 못한 연고로 그 마지막이 비참했다.	
뉘우침이 없는 바리새인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회개할 줄 아는 세리가 되자. 그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이종윤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	
청 결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힘씁시다.
유 지	교회에서 음식을 섭취는 만나 홀(801호)에서만 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절 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옵시다.
주 일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성 수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